

행정 간행물 등록번호

11-1390000-002938-01

# 작지만 강한농업(強小農)육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소득 향상 운영 매뉴얼(특용작물분야)

품 목	녹 차
작 성 일	2011.08.05



# 녹 차

## I

### 농업소득 향상전략 구성 및 배경

- 품종을 선택하는 데는 수량과 품질이 중요한데, 현재는 수량보다 품질을 중요시 함
- 차나무는 한번 정식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50년간은 개식하지 않으므로 다원 조성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에 따라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차 생산을 위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 미생물 함유 토양 생태계를 차나무에 적절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토양 검정을 통해 다원의 문제점을 알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토양 개량과 과잉시비, 불균형 시비의 문제점 개선
- 차나무는 타 유실수와는 달리 잎을 수확하는 영년생 작물로 새싹을 매년 3~4회 수확하고, 정지를 행하기 때문에 시비는 이 같은 수확 정지에 의해 소모된 양분의 보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
  - 질소흡수는 탄수화물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차잎의 신장기에는 정체되고 신장 정지거나 수확 후에 활발하며, 맹아기와 생육상 전환기에는 인산, 칼리의 흡수 증가
- 양질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차나무 수확면 고르기가 매우 중요
- 한해 및 동·상해는 국부적인 여건, 기상 여건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으며 강한 바람이 불면 피해가 더 심함
- 경제적인 수확적기는 경영자의 입지적인 여건 및 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해의 기상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II

# 농업소득 10%향상 세부실천 과제

## 1 지역 및 포장에 적합한 품종선택

### < 현 황 >

- 품종을 선택하는 데는 수량과 품질이 중요한데, 현재는 수량보다 품질을 중요시 함
- 재배 안정화를 위해 품종의 다수성, 고품질, 조만성, 내한성과 내병성, 기타 불량환경에 대한 내성 등 고려
- 품종이 단일화되고 편중 되므로써 수확기의 집중화, 품질의 획일화, 만상해의 증가나 병해충의 다발 등 재배, 제조,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 발생

### < 대 책 >

- 선택, 향기, 자미(滋味) 등 좋은 품질을 갖는 품종 선택 재배하여 질 좋은 차 생산
- 품종의 다수성, 고품질, 조만성, 내한성과 내병성, 기타 불량환경에 대한 내성 등 고려
  - 첫물차 수확시기는 저온에 의해 생육이 좋지 않아 수량이 감소하는 반면 질은 좋은 반면, 수확 시기가 늦으면 온도가 높고 적당한 조건이 되어 차잎의 생장이 좋아 수량은 많은 반면 질은 떨어짐
  - 겨울철 한해 상습지역에서는 중·만생종을 심어 기상 재해를 막음으로써 양질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따뜻한 지역에서는 조생종 차나무를 심고 적기 수확이 매우 중요

- 같은 품종을 집단으로 재배하면 수확시기가 집중되므로 조·중·만생종의 품종 조합 필요
- 한발의 피해나 충해의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생산의 안정화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내한성·병해충 저항성 품종 도입
- 수확시기가 집중될 때는 조·만생 품종을 조합하여 수확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노동력의 배분과 경영규모의 확대 등 경영 안정화 도모
-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고 품종의 특성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대에서는 중생종, 만생종을 조합하는 목표 수립

**<품종 조합의 목표>**

항 목	평 야 지 대	중 간 지 대	산 간 지 대
조생종(%)	30	20	10
중생종(%)	50	50	50
만생종(%)	20	30	40
고려해야 할 사항	조생종은 동상해 위험이 적은 장소를 선택, 방상 대책 필요	지형과 기상조건이 다른 지역을 이용, 조생종은 방상 대책이 필요	겨울에 한해 피해가 심한 지역, 병해 발생이 많은 지역, 내병성, 내한성 품종 선택

## < 참 고 >

### 주요 국내 품종 특성

- **보향(寶香)** : 숙기는 중생종으로 내한성은 강하지만 연평균 온도 13℃이상 지역인 남부해안 지역인 전남, 경남, 제주에 적합하고 산간 내륙지역은 수광 태세가 좋은 남향에 재배해야 하며, 내병성으로 탄저병, 겹둥근무늬병에 강하고 내충성은 중 정도이다. 수형은 직립형으로 수세가 강하며 특히 신초 생장이 균일하고 양호하여 기계화 재배에 용이한 품종이다.
- **명선(茗禪)** : 숙기는 만생종이고, 수형(나무퍼짐성)은 옆으로 퍼지는 개장형으로 잎은 매우 적은 소엽종에 속하고, 100아중은 21g으로 낮은 편이며 신초 발생도 중 정도로 수량성이 낮은 품종이지만 엽중에 탄닌 함량이 높아 기능성 차로 적합한 품종이다.
- **참녹** : 숙기는 조생종이고, 차나무 퍼짐성은 직립형으로 수세가 강하여 수량성이 높은 품종이다. 내한성은 강한 편이지만 연평균 온도 13℃ 이상 되는 남부 해안 지대인 전남, 경남, 제주에 적합하고 산간내륙 지방은 수광 태세가 좋은 남향에 심어야 한다. 내병성으로 탄저병, 겹둥근무늬병은 강하고 포장에서의 내충성도 강한 편이었다.
- **선향(보성57호)** : 숙기는 중생종으로 뒤음차에 적당하다. 수세는 강건하고 직립이며 절간장이 길고 분지수가 많다. 성엽은 타원형이고 잎이 약간 작으며 잎은 광택이 있다. 신아는 약간 크며 수량은 야부기다 보다 약간 많다. 내한성이 강하며 탄저병과 겹둥근 무늬병에 강한 편이다. 품질은 수색이 좋고 향은 온화한 편이다.
- **미향(보성100호)** : 숙기는 중생종으로 찐차, 가루차용으로 적당하다. 수세는 강건하고 직립이며 절간장이 길고 분지수가 많다. 성엽은 장타원형이고 잎이 약간 크며 잎은 황녹색의 광택이 있다. 신아는 약간 크며 수량은 야부기다 보다 약간 많다. 내한성이 강하며 탄저병과 겹둥근 무늬병에 강한 편이다. 품질은 수색이 좋고 향은 온화한 편이다.

## 2 차밭 선정 및 조성

### < 현 황 >

- 차나무는 한번 정식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 ~ 50년간은 개식하지 않으므로 다원 조성이 잘 되었으나, 잘못되었느냐에 따라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침

### < 대 책 >

- 예정지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표층에 부식질이 풍부하고 차나무의 뿌리가 용이하게 뻗어갈 수 있는 토층이 깊은 (약 1m 정도) 평야지 토양이 바람직하며 차밭 선정 유의
- 차밭 조성전 검토사항
  - 겨울 동안의 최저기온과 계절풍의 방향, 동·상해의 발생 빈도 등을 조사하여 한해·동상해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다원 개설을 피함
  - 토양조건으로서는 유효 토층의 깊이, 자갈함유량, 점토나 암반 및 불투수층의 유무 등 고려
  - 기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이 출입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고 지형의 경사도, 경사방향, 기복, 함몰지 등을 고려하여 이랑 조성
- 경사도 15°이하의 경사지에서의 계단식 조성, 성토에 의한 조성, 평지조성 방식있는데, 경제성을 고려한 다원 조성은 산간지, 경사지, 평지에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조성
- 조성 방법과 조성시 주의점
  - 표층토의 확보 : 개간시 비옥도 차를 없애기 위해서 비옥한 경작 토양이 하층에 매몰되지 않도록 함

- 조성 작업은 기상 조건이 좋았을 때 11월부터 2월 상순까지,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또한 토양이 건조한 상태일 때 작업 능률이 향상되며 답압(踏壓)이 적음
- 개간에 사용하는 중기는 소·중형으로 토양의 답압을 가능한 적게 함
- 중기의 운전은 다윈 조성 및 개간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의뢰
- 개간 후에 토심의 깊이를 1m정도로 하기 위하여 전면 경운하고 정지하여 요철을 없애야 기계화가 용이
- 배수가 불량한 곳은 개원 전 반드시 암거 설치
- 질 좋은 차 생산 및 뿌리를 깊게 유도하기 위하여 유기물을 다량 사용

#### □ 묘목에 의한 차밭 조성 방법

- 퇴비는 5~6톤/10a과 용성인비를 50kg/10a 사용하고, 신규 개간지에서는 인산비료를 많이 사용하여야 차나무 생육에 유리
- 묘목의 질(양, 불량)에 따라 식재후의 생육 및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량한 묘목 준비
- 6월에 삼목한 묘목은 일년 4개월 이후(다음해 10월)에 굴취하여 이랑 20cm, 주간 10cm 정도 가식하여 1년간 더 키운 뒤에 2년생으로 봄(3~4월)에 정식
- 일반적으로 2년생 묘목을 식재 할 때라도 겨울철을 나면서 동해나 한해를 받아 실패할 우려가 많으므로 어린 차나무 주변이 동결되지 않도록 볏짚이나 왕겨, 야생초, 낙엽 등을 깔아 월동
- 묘목은 뿌리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굴취 후에는 빨리 심는 것이 좋음
- 묘목을 굴취 할 때 뿌리에서의 흙이 쉽게 떨어져 뿌리가 건조할 때는 황토로 흙탕물을 만들어 뿌리에 충분히 바른 후 심으면 활착율 향상
- 좋은 묘목은 줄기가 크고 지재부에서 부터 가지가 많아야 함



### 3 정식 후 토양관리

#### < 현 황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차 생산을 위해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 미생물 함유 토양 생태계를 차나무에 적절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 대 책 >

- 토양 검정을 통해 다원의 문제점을 알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토양 개량과 과잉시비, 불균형 시비의 문제점 개선
- 이랑 사이의 pH가 4.0이하의 산성 토양은 마그네슘석회 등을 사용하여 교정
  - 10a당 100~150kg, 생육이 양호한 다원은 150~200kg, 산간지와 자갈이 많은 밭에서는 80~120kg 정도 사용
  - 마그네슘석회와 질소나 칼리비료는 함께 사용 지양(회산 우려)
  - 8월 중순~9월 하순에 사용하고 심경하여 땅속에 고루 섞이게 함
- 심경은 전면에 실시하면 지하에 넓게 분포하는 뿌리를 절단하여 생육에 해로우므로 이랑 사이에만 실시
  - 산간지는 8월 하순경, 평탄지는 8월 하순~9월 상순경 실시
- 중경은 표토를 갈아줌으로써 토양을 연하게 하며, 통기성을 개선하여 뿌리의 발육을 조장하고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므로 시비와 동시 실시
- 부초는 이랑 사이에 잡초의 생육을 억제하고 토양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고 수분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생육이 촉진
  - 부초량은 800~1200kg/10a가 좋고 이랑이 넓은 때는 부초량을 증가
- 차밭 토양의 부식을 증가시켜 보비력을 높이는 등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퇴구비 사용
  - 퇴구비는 완전 부숙시켜 사용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10a당 2~3톤 사용

< 참 고 >

다원 토양 개선 기준

토양의 종류	양 토	사 양 토	화 산 회 토
작토 깊이	30cm ~ 1m		
작토 pF1.6의 기상	18% 이상		
주요 근군의 두께	60cm 이상		
투수 계수	10 <sup>-4</sup> cm/sec 이상		
적수 분역	pH 1.5 ~ 2.3		
주요근군 및 긴밀도 (山中 경도)	20mm 이하		
적정 PH	4.0 ~ 5.0		
부식(건토)	8% 이상	5% 이상	3% 이상
양이온 교환 용량 (건토CEC)	20me 이상	20me 이상	20me 이상
치환성염기 CaO(mg/100a)	100~200	100~150	60~100
(건토) MgO(mg/100a)	25~50	20~40	20~40
염기포화도 K <sub>2</sub> O(mg/100a)	25~75	25~75	25~50
CaO 포화도	15~25%		
염기 포화도	25~40%		
유효 인산	10~30mg	20~50mg	20~50mg
EC	10ms 이하		

주) 1. 토양 채취는(성목원) 이랑 사이에서 깊이 0~20cm

2. 길이 1m 이내

## 4 차나무 시비관리

### < 현 황 >

- 차나무는 타 유실수와는 달리 잎을 수확하는 영년생 작물로 새싹을 매년 3~4회 수확하고, 정지를 행하기 때문에 시비는 이 같은 수확 정지에 의해 소모된 양분의 보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
- 질소흡수는 탄수화물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차잎의 신장기에는 정체되고 신장 정지거나 수확 후에 활발하며, 맹아기와 생육상 전환기에는 인산, 칼리의 흡수 증가

### < 대 책 >

#### □ 유목원의 시비량과 시비법

- (정식 당년) 활착 후 질소, 인산, 칼리비료를 소량씩 2~3회 살포
  - 정식을 3월 하순에 하였을 때는 5월 중하순에 제1회 웃거름 시용
  - 제2회 웃거름은 6월 중순, 제3회 웃거름은 7월 중순 제4회 웃거름은 8월 중순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10a당 3~4kg을 분시
  - 가을 비료는 9월 이전에 10a당 질소 5kg, 인산 3kg, 칼리 4kg와 유기질 비료를 시용
  - 9월 이후에는 비료를 주지 않아야 겨울철 동해 피해 경감
- (정식 2년째 이후) 성목원의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 시비량에 준해서 시용
  - 겨울철 한해와 동해가 발생하는 다원에서는 9월 이전까지 시비 완료
  - 연 6~7회 정도로 분시하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이나 산간지에서는 시비회수 증가

## □ 성목원의 시비량과 시비법

- 생엽 100kg 생산에 필요한 시비량 : 질소 3.0kg, 인산 1.0kg, 칼리 1.5kg
- 수확량이 많은 다원은 시비량을 늘려야하며, 지대 및 수확방법에 따라 시비량을 가감
  - 산간지대와 평탄지를 비교해서 강우량이 많고 비료성분의 용탈량이 많은 곳은 질소비료를 30%, 내한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칼리비료 20% 증시

### <차밭 비료 시용량('96. 보성차)>

시 비 시 기	시비량 (kg/10a)			유기질비료(kg/10a) (N함량 : 0.7%정도)	비료흡수비율 (%)
	N (질소)	P2O5 (인산)	K2O (칼륨)		
봄비료(3월중~하순)	12	10	15	1,000	N : 25, P : 50, K : 25
새싹비료(4월초순)	6				
여름비료 I(5월중~하순)	12			1,000	N : 10, P : 5, K : 10 N : 20, P : 5, K : 20
여름비료 II(7월초~중순)	12				
가을비료(9월말~10월초순)	18	10	15		N : 45, P : 40, K : 45
합 계	60	20	30	2,000	

- 질소는 년 4~5회 분시하고 인산, 칼리는 봄가을에 2회 분시
- 시비시기와 분시비율, 양분 흡수의 상황과 비료 성분의 토양 중에 잔류 등을 고려하여 시비량과 시기 결정

### <시기별 분시비율>

구분 비종	시비량 (kg/10a)	분 시 비 율(%)			
		가 을 비 료	봄 비 료	여름비료1회	여름비료2회
		9월상중순 8월하순, 9월중순	3월상중순 3월상중순	첫물차수확후	두물차수확후
질 소	60	30	30	20	20
인 산	20	50	50	-	-
칼 리	30	50	50	-	-

## 5 정지 및 갱신을 통한 고품질 차 생산

### < 현 황 >

- 양질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차나무 수확면 고르기가 매우 중요
- 최근 고품질 차를 선호함에 따라 이른 봄차 생산을 위하여 세물차 이후의 차 생산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 대 책 >

- 수확후 수확면을 균일하게 하고, 다음차 수확기에 노엽, 나뭇가지, 불순물이 혼입 방지하기 위해 정지 실시
  - 가을 정지는 월평균 온도가 18~19℃ 되는 시기가 적기이며 정지 정도는 충분한 엽층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나 8cm 정도가 적당 (전 수확면에서 5cm위나 2~3엽을 남기고 정지)
  - 봄 정지는 2월 하순~3월 중순에 실시하는데, 봄 정지가 빠르면 동해 피해를 받게 되고 늦으면 수량 감소

### <가을, 봄 정지의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가을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이 동시에 나와 수확면이 고름</li> <li>○ 수확시기가 3~4일 빠름</li> <li>○ 신초(새순)수는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상해 피해를 받기 쉬움</li> <li>○ 눈의 무게가 가벼움</li> </ul>
봄 정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상해 피해가 적음</li> <li>○ 눈의 무게가 무거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면이 고르지 않음</li> <li>○ 수확기가 3~4일 늦음</li> <li>○ 신초수가 적음</li> </ul>

- 첫물차 수확후 늦순이 나오면 잘라 주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수확면을 고르는 식으로 얇게 하고 시기는 첫물차 수확후 5~10일에 실시

□ 매년 수확을 반복하다 보면 가지가 가늘어지면서 밀생하게 되며, 잎과 신초가 적고 전개 엽수도 적게 되어 수량이 떨어지므로 갱신 전지 실시

- 첫물차 수확 후인 5월 중순에 실시
- 차밭갱신전지 방법으로는 수고<sup>1/2</sup> 자르기(중간자르기) 전지가 가장 좋음
  - 지속 효과는 5~7년 정도로 우리나라 차밭에서는 가장 적합
  - 갱신 전지 후 당년 7월 하순경에 신초가 20cm 정도 자랄 때 수확면을 고르는 재정지 가능

□ 정지에 의한 유목원 수형관리

- 2년생 이후의 정지는 3월에 실시하고 3년생 이후의 기계 수확을 할 때는 수평 정지를 하는데 첫물차 전후에 하고 생육이 순조로운 포장에서는 가을에 정지
- (정식시의 수형) 직립형 품종 정지 높이 15~20cm, 개장형 품종 정지 높이 20~25cm, 중간형 품종 정지 높이 20cm정도
- (2년생의 수형) 직립형 품종은 25~30cm, 개방형 품종은 30~35cm, 중간형 품종은 30cm로 전년 정지 위치로부터 10cm 높이의 위치에 정지
- (3년생의 수형) 정지 위치는 직립형 품종은 30~35cm, 개장형 품종은 40~45cm, 중간형 품종은 35~40cm에서 실시
- (4년생의 수형) 수확 면적율이 성목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수형 형성을 고려하여 정지
  - 정지 높이는 직립형 품종을 40~45cm, 개장형 품종은 50~55cm로 전년 정지 위치로부터 10cm 높이의 위치에 정지

## 6 한해 및 동·상해 대책

### < 현 황 >

- 한해 및 동·상해는 국부적인 여건, 기상 여건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으며 강한 바람이 불면 피해가 더 심함

### < 대 책 >

#### 한 해

#### □ 사전대책

- 피해가 심한 지역은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심고 가을 늦게까지 생육되지 않게 비료를 적게 또는 일찍 실시
- 벧짚이나 풀을 덮고 토양의 건조와 지온의 저하를 방지하고 방풍벽을 만들어서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
- 찬바람이 심한 지역은 방풍벽 설치(통풍율 40~60%로 조정)

#### □ 사후대책

- 가벼운 피해(낙엽, 엽고현상)는 방임하며 유목원에서는 수세가 좋을 경우 첫물차 수확후에 정지를 하고 수세가 나쁜 경우에는 새싹이 나오지 않는 3월경에 정지
- 선단부 고사 정도가 심한 피해시에는 2월하순~3월상순경 약정지 정도로 피해부 제거

#### 동·상해

#### □ 재배상 방지법

- 동·상해 상습지대에서는 만생종을 재배하는 것이 유리
- 수고를 높게 유지하고 차나무 표면의 수형을 삼각형 형성
- 현재 재배되고 있는 중생종 포장에서는 첫물차의 맹아기를 인위적으로 지연시켜서 피해를 경감
  - 정지작업을 3월 중순~하순에 실시하여 맹아시기를 1주일 정도 지연

#### □ 피복법

- 차나무 주변의 냉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냉사나 부직포 등의 화학섬유를 이용
- 피복자재를 차나무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 떨어져서 설치

#### □ 송풍법

- 차나무 표면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서리가 내릴 위험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작동
- 방상훤은 10a당 2~3kW 면 안전하며 지상 5~6m 높이에 설치
- 운전 개시온도는 3℃가 안전하고 온도센서이외에 풍속감지기를 함께 사용하며, 강풍시에는 공회전을 피함

#### □ 살수빙결법

- 살수량은 살수시 물의 부착효율(30~50%)을 고려하여 매시 3~4mm가 적당
- 차나무위의 온도가 2℃ 정도의 낮은 시점으로부터 살수를 시작하여 아침 기온이 상승하여 부착된 얼음이 녹을 때까지 살수 유지
- 해 뜬 후 30~50분후로 기온이 5℃ 정도에서 중지하는 것이 좋음
- 상당량의 수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3일 동안 연속 가동하여 배수가 안되어 위험하므로 배수에 주의



## 7 수확 적기 및 방법

### < 현 황 >

- 년중 수확하는 시기가 3~4회 되므로 수확 시기와 방법을 잘 고려하여 수확함으로써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의 각 수확 때마다 고급차, 중급차 및 하급차 등 여러 종류의 차를 생산
- 경제적인 수확적기는 경영자의 입지적인 여건 및 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해의 기상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 대 책 >

- 출개도, 경화도, 전개엽수 등에 따라 수확적기 결정
  - (출개도) 출개도 50~80% 정도
  - (경화도) 새순이 절반(40~50%)정도가 끊어지는 시기
  - (전개엽수) 첫물차에서는 5~6매, 두물 ~ 세물차에서는 4매정도 잎이 나왔을 때
- 수확 방법에 따라 작업능률 차이 발생

수확 방법	작업 인원	노동 강도	작업 난이도	1시간당 작업면적	1시간당 생엽 수확량
손 수확	1명	약	고	0.1a	1~ 2 kg
손가위 수확	1	약	중	0.3	12~ 25
휴대용 수확기	1	중	중	1	35~ 60
메는형(가반형)수확기	2	강	중	4	250~370
승용 수확기(반자동)	2	약	중	6	360
승용 수확기(자동)	1	약	중	10	600
레일형 주행 수확기(인력)	1	중	고	3.5	210
레일형 주행 수확기(자동)	1	약	고	6	360

- 품질을 위주로 하는 경영을 할 때는 옥로차나 말차(末茶) 등의 수확은 손수확을 하고, 수량을 비교적 많이 얻기 위해서는 활모양형 수형으로 하여 동력 수확기로 수확
- 제1단계 수확은 출개울 30~50%일 때에 경화엽이 들어가지 않게 손으로 수확하거나 동력 수확기로 수확하고, 약 15일후 약간 깊게 2번째 수확 실시
  - 1회 때는 양질의 수확이고 2회 때는 약간 큰 잎으로 다수확
- 세물차는 수세를 보아 최종 수확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
  - 수세가 나쁜 포장은 수확 횟수를 적게 하여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물차 수확 지양
- 동해가 심하고 기온이 낮은 지역은 최종수확을 9월말 ~10월 상순 이전까지 앞당겨 끝내야 함
  - 최근 첫물차의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세물차의 생산을 하지 않고 첫물차와 두물차 생산에 주력

도움주신 분

농촌지원국 원예특작과 농촌지도관 김병철

농촌지원국 원예특작과 농촌지도사 임희정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지방농업연구사 최 정

품목별 농업소득 향상 운영매뉴얼(특용작물분야)  
녹차

---

발 행 일 2011년 8월

발 행 인 농촌진흥청장 / 민승규

편 집 인 농촌지원국장 / 이학동

편집기획 지도정책과 / 김영수, 최상호, 김광식, 전중환

집필기획 식량축산과 / 박홍규, 김병철, 임희정

발 행 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031-299-1059)

(우) 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ISBN 978-89-480-1233-0 98520

※ 본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실 때에는 농촌진흥청과 사전에 협의하시거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농촌진흥청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